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우리 풍토에 우리 목소리로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와서 불학(佛學)이 된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다양한 논서(論書)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마르크스 사상이 중국에 흘러들면서 마오이즘(Maoism)으로 중국화 되는 과정과 같은 이치이다. 사상과 철학, 요즘에 이르러 국제적 상거래마저 중국 특유의 흡수력으로 상표의 고유 명칭마저 중국에 오면 힘을 잃고 중국 표기의 발음부호로 불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와서 불학(佛學)이 된 이후 한국 불교계의 중국 불학(佛學)에 의존하는 다변성의 획일화에 대해서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헤아리기 벅찰 만큼 그 숫자가 많다. 〈지장경〉, 〈정토경〉, 〈시왕경〉, 〈보살경〉, 〈업보경〉, 〈천지팔양경〉 등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僞經) 목록에 끼어있다. 한국 불교에 널리 알려진 부처님과 가섭존자와의 삼처전심(三處傳心)의 일화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대범천왕문불결의경〉에 박혀있는 중국산 이야기일 뿐이다. 거기다가 부처님에서 중국의 혜능선사에 까지 이어져오는 33조사설도 중국의 토양에서 시대와 연대까지 무시하며 그럴듯하게 꾸며진 짜 맞춤식 억지 계보인 것이다.

또한 선어록집(禪語錄集)에 담겨진 선사들의 가르침과 일화에도 후대에 수집하고 집필한 사람에 따라 친소의 끌어당김과 버림 현상이 현저히 드러나는 오류를 범해왔던 것이다.

그 단적인 증거로 오조 법연 선사계는 사그라들 만큼 자취를 찾기 어렵고 육조 혜능계는 눈부실 만큼 찬란하게 그들의 가르침을 돋보이게 기록했던 것이다. 어록(語錄)의 집필자에 의해 조망권을 달리하는 빛과 어둠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선어록의 백미(白眉)로 꼽히는 〈벽암록〉에도 인도의 승려가 요술을 부리는 듯한, 전혀 선미(禪味)를 느낄 수 없는 선문(禪門)밖의 일화도 서너 개 끼어있어 벽암록의 티가 되고 있다.

한국불교에서는 언제부터인지, 왜 인지는 모를 일이나 선사(禪師)가 법상에 오른 후 토해내는 말씀들은 중국 선사들이 주고받은 색 바랜 언어로 춤을 추는 현실이다.

초식동물들이 흔히 되새김질을 즐긴다는데 한국의 선사들은 이제 제발이지 중국 선사들의 말투나 뒤 따르듯 흉내 내는 되새김질을 마감하길 바랄뿐이다.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와서 불학(佛學)이 되었듯이 중국의 불교도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와 토양에 맞게 한국인의 색깔과 목소리로 그 공감대의 둘레를 넓혀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원(禪院)에서도 간화선(看話禪) 제일주의에서 몇 걸음 더나가 한국 토양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화두(話頭) 정진이 이루어져야한다.

조사어록을 살펴보면 야사(野史)와 속어(俗語)등 당시에 유행하던 속담까지 끼어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인만이 느낄 수 있고 알아차리고 의심덩어리로 확대되는 1.700개의 공안(公案)은 한국인에게는 생소하게 굼뜬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때 만들어진 선사들의 어록이 천년의 세월 간격을 넘어 한국의 수행자들에게 금과옥조(金科玉條)가 될 수 있겠는가?

한글세대 대중에 한문 게송이라니 우리 언어로 된 설법이 그립다

간화선(看話禪)수행의 생명력은 간절심으로 모아지는 화두정진인데 글쎄 천년 전 당송시대에 느꼈던 의심덩어리가 오늘날까지 국적도 다른 한국인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을까?

언어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한세대로 규정짓는 30년 간격으로 조금씩 변화해 간다는 것이 언어학계의 정설(定說)이다.

임진왜란 때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부를 때 '자네'라고 호칭했다. 가까운 예로 50년 전에는 부부의 호칭이 임자와 당신으로 40년 전엔 '여보'로 통일 되었고 30년 전에는 '자기'로 20년 전부터 서로의 이름을 편히 부르는 단계로 변화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신기하고 신비롭게도 불교계의 변화는 더디기만 한 것이다. 한글세대의 청중 앞에서 한문으로 된 게송을 즐겨 읊거나 불교계의 신문에 실린 고승들의 법어(法語) 내용도 중국의 선사들 어록의 되새김질에 그치는 경우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색깔이 담긴 우리 목소리의 설법이 그리워지는 오늘이다.

부처를 똥 묻은 막대기라 하다니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오가칠종의 선종 가운데 운문종(雲門宗)은 운문 문언(雲門文偃:864~949) 선사가 종조(宗祖)이다. 운문종도 육조 문하에서 청원행사, 석두희천으로 법맥이 이어져 와 설봉의존 밑에서 탄생하였다. 운문 선사는 당나라 말 오대(五代)의 스님이다. 절강성(浙江省) 가흥(嘉興) 출신으로 공왕사(空王寺)에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다. 비구계를 받고 처음에는 여러 경론을 섭렵하고 〈사분율(四分律)〉을 깊이 연구하기도 했다.

선(禪)을 시작한 것은 목주 도종(睦州道)의 문하에서 였으나 나중에 설봉의존(雪峰義存)을 친견하고 3년 동안 공부하고 인가를 받아 그의 법을 이어 종지를 전수 받았다. 그 후 제방을 편력하다가 소주(韶州) 운문산(雲門山) 광태선원(光泰禪院)에 주석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그의 문하가 크게 융성하여 산 이름을 따 운문종이라 부르게 되었다.

운문종에 대해 평한 말은 여러 문헌에 나타나 있다. 〈인천안목〉에는 "운문종의 종지는 온갖 망상의 흐름을 끊고, 헤아리는 어떤 분별도 용납하지 않으며, 범부도 성인도 갈 길이 없고, 색각에 의한 이해로는 통할 수 없다."(雲門宗旨 絶斷衆流 不容擬議 凡聖無路 情解不通)고 하였다.

운문 선사가 사람들을 제접할 때마다 남긴 말이 공안이 된 것이 여러 개가 있다. 예를 들면 '간시궐' '호떡(胡餠)' '화약란(花藥欄)' 등이다. 한 학인이 부처가 무엇이냐고 묻자 운문 선사가 '마른 똥 막대기(乾屎橛)'라고 답했다. 또 한 번은 "어떤 것이 부처와 조사를 초월한 말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고는 '호떡'이라 대답했다. "청정한 법신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화약란(花藥欄)이라 답했다. 화약란은 정원에 목책으로 둘러쳐진 활짝 핀 함박꽃 울타리를 말한다.

부처가 왜 마른 똥 막대기인가? '호떡'과 '화약란'은 또 무엇인가? 이런 식(式)의 말을 격외구(格外句) 또는 격외현담(格外玄談)이라고 한다. 격식 밖의 말 곧 상식을 초월한 어구로 선에서는 이 격외구를 알아차리는 것을 활구(活句) 소식을 얻는다 한다. 활구(活句)란 사구(死句)와 상대적인 말로 선종에서 써 온 용어인데 의미(義味)가 있고 의로(意路)가 통하는 말을 사구라 하는 반면 의로가 통하지 않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을 활구라 한다. 일반적인 상식, 보통 사고의 틀을 벗어나 어디에도 구애 없이 자유롭게 본심을 드러내는 현묘한 말이라고 한다.

조사선(祖師禪)을 원래 격외선(格外禪)이라도 불렀다. 또 격외현기(格外玄機)라 하여 견성(見性)한 사람이 부리는 사유와 분별을 초월한 현묘한 기용(機用)으로 조사선에서 견성한 자를 감변(勘辨)하는 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격외의 기틀로 격외의 작용을 시행한다"는 말이 있으며 "현묘함을 말하고 도를 부르짖는 것이 모두 격외의 기틀이 아님이 없으니, 새가 나는 길처럼 종적이 없어야 도인이 가는 길이라고 할 것이다"고 했다.

이와 같이 격외선지를 거량하면서 종풍을 드날렸던 운문종은 북송(北宋) 시대를 정점으로 크게 흥성했다. 남송시대에 와서는 금(金), 요(遼), 원(元) 등 유목민족의 침입으로 북방지역에 있던 운문종 사찰들이 사원을 유지할 경제적 기반이 소실되면서 위축되기 시작하였고 원대에 와서 쇠퇴하고 말았다.

〈경덕전등록〉에 기재된 운문 선사의 사법(嗣法) 제자는 25인으로 나오는데 그 중 동산수초(洞山守初), 향림징원(香林澄元), 뇌악실성(雷岳實性), 덕산연밀(德山緣密), 쌍천사관(雙泉師寬), 파릉호감(巴陵顥鑒) 등이 대표적인 제자다. 운문 선사의 제자 향림징원의 법맥을 계승한 불국유백(佛國惟白)은 운문종과 임제종의 공안을 위주로 등재한 〈건중정국속등록(建中靖國續燈錄)〉을 1101년에 편찬하였고, 남송 때 뇌암정수(雷庵正受)는 1204년에 〈가태보등록(嘉泰普燈錄)〉을 편찬하였다. 운문 선사의 어록은 〈운문광록(雲門廣錄)〉이라 줄여 말하는데 운문 선사가 열반에 든 뒤 9년 후인 후주(後周) 때인 958년에 수견(守堅)이 엮었다. 그 뒤 1053년에 천의의회(天衣義懷)에 의해 수정되었고, 다시 1076년에 소해(蘇)의 간정(刊正)을 거쳐 1143~1145년에 원각종연(圓覺宗演)이 교감하여 이 교감본이 1267년 〈고존숙어록(古尊宿語錄)〉에 추가되었다. 이후 다시 명나라 때 판각된 〈고존숙어록〉을 거쳐 명대(明代)에 곽응지(郭凝之)가 편찬한 〈오가어록(五家語錄)〉의 저본이 되었다.

相이 있으면 중생, 없으면 부처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⑮ 대승정종분 제 3

佛告. 須菩提 諸菩薩摩訶薩 應如是降伏其心.所有一切衆生之類 若卵生 若
(불고 수보리 제보살마아살 응여시항복기심. 소유일체중생지류 약란생 약)
胎生 若濕生 若化生 若有色 若無色 若有想 若無想 若非有想 非無想 我皆令
(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아개영)
入無餘涅槃 而滅度之 如是滅度無量無數無邊衆生 實無衆生得滅度者 何以故
(입무여열반 이멸도지 여시멸도무량무수무변중생 실무중생득멸도자 하이고)
須菩提 若菩薩 有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卽非菩薩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킬 것이니라. 무릇 일체 중생의 종류인 '알로 생기는 것' '태로 생기는 것' '습기로 생기는 것' '화하여 생기는 것' '형상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도 생각 없는 것도 아닌 것'들을 내가 모두 다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하리라. 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만 실로 한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나라는 생각(我相), 남이라는 생각(人相), 중생이라는 생각(衆生相), 오래 산다는 생각(壽者相)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보살이 마음이고 마음이 보살이며, 마하살은 이 뜻을 강조한 것입니다.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일체가 한 마음인줄 모르고, 한 생각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망념을 일으키면 그 업보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에 중생으로 태어 납니다.

중생은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등의 분별망념을 일으키기 때문에 중생입니다. 이런 분별망념을 여의면 중생은 제도된 것이지만, 그러나 분별망념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망념은 스스로 있지 못하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있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망념은 깨달음으로 인하여 없으므로 없는 것도 아니고 서로 융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망념이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망념이며, 중생이 부처이고 부처가 중생이며, 중생과 부처가 마음이고 마음이 중생과 부처이기 때문에, 이룰 부처도 없고 제도할 중생도 본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똑똑하고 잘났다며 아만(我慢)을 부리는 아상(我相), 나와 너는 다르고, 너보다 훌륭하다며 거만하여 사람을 경시하는 인상(人相), 좋은 일은 내 탓이고 나쁜 일은 너의 탓이며, 고통은 싫어하고 즐거움은 좋아하는 중생상(衆生相), 복을 많이 받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수자상(壽者相)이 있으면 이는 곧 보살이 아닙니다.

금강경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상(相)이란, 생각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눈, 귀, 코, 혀, 몸, 뜻의 6진과 모양, 소리, 향기, 맛, 촉감, 법의 6진과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의 6식을 포함하여 있음과 없음, 옳고 그름, 생과 사, 좋아하고 싫어하는 등의 대립의 이분법으로 표현되는 분별의 상대법을 통 털어서 상(相)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상을 어떻게 하면 바로 볼 것인가! 하고 말씀하신 것이 팔만사천법문입니다. 즉 상이 있으면 중생이고 상을 여의면 부처인데, 이 상은 다름이 아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깨달음
주도인 답한다
주도인 지음

내 용
제1편 학문세계의 깨달음
제2편 정신세계의 깨달음

부 록
주도인 〔주역·불교〕 8강좌
제1강좌 깨달음 ↔ 영성론강좌
자기분야 달인이 되는 길
제2강좌 선·명상강좌
제3강좌 심법(心法)강좌
제4강좌 관상학강좌
제5강좌 주역점술학강좌
제6강좌 사주명리학강좌
제7강좌 불교 금강경강좌
제8강좌 한약 사상체질론
동의보감강좌

현대출판사 발행. 443쪽.
정가 22,000원
문의처 010-2490-2346.

주 도 인

나는, 이 시대의 도인이자 현자로 나섰습니다.
1957년 인문고교를 수석졸업하고 약학대학 2학년 때부터 주역연구를 시작, 한약국(韓藥局)을 36년 경영하면서 **주역운명론, 불교금강경, 사주명리학, 한약**(사상체질론 • 동의보감) 등 『네 분야』를 통달하고 주도인 깨달음체계 **"세 가지 방법론"**을 완성한 후 **60년**만에 『깨달음. 주도인 답한다』를 세상에 내어 놓았습니다. 이 시대의 도인(道人)이자 현자(賢者)임을 자부합니다.

주도인 인생상담실
인생문제를 상담하며 단,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주도인 (주역·불교) 학당
주도인 (주역 • 불교) 8강좌는 각기 독립된 강좌이기 때문에 1(일)강좌씩 수강신청을 받음. "최고급 강좌"로서 1인 또는 3인 이내에서 강론 함.『깨달음. 주도인 답한다』에 그 대강(大綱)이 나와 있음.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은빛1단지 아파트 102동 311호.
010-2490-2346. 주도인 〔구명(舊名) : 주경호〕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